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6.(목) 12:00
(지 면) 2026. 11. 27.(금) 조간

올해 전국 빗물받이 898만 회 정비, 우수사례 30건 사례집 발간·배포

- 빗물받이 423만여 개소 대상 898만 회 정비 실시, 누적 정비율 212% 달성
- 정비 우수사례 30건 선정,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예시>

○(민·관 협력) 서울 은평구는 공무원·통장단 등 74명으로 '물길파수꾼'을 구성해 장마 전 빗물받이를 정기 청소하고 호우특보 시 덮개를 즉시 제거했다. 또한, '1:3 밀착 예찰'로 침수취약가구 175곳을 살폈다.

○(시설 개선) 충남 예산군은 가로수가 밀집한 관광도로(군도 12호선)에 월류 보조 장치인 '홍수비상구' 31개소를 설치해, 낙엽·덮개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도 빗물이 우회해 배출되도록 해 도로 침수를 예방했다.

○(인력 채용) 부산 사상구는 기간제 도로 준설원을 채용해 자체 준설팀을 상시 운영하여 빗물받이 6,494개소를 점검·준설하고, 호우 시 빗물받이 막힘 민원에도 즉시 대응했다.

○(관리체계 구축) 강원 홍천군은 빗물받이 8,034개소를 전수조사해 위치·규격·관리상태를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체계로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추진한 빗물받이 정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우수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빗물받이 정비 전담팀'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가동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장마 전에 1차 정비를 완료(정비율 124.5%, 6월 초 기준)했으

며, ‘비 오기 전 점검, 비 온 후 청소’ 원칙에 따라 반복 정비를 실시해 약 898만 회, 누적 정비율 212%*를 달성했다.

* 빗물받이 1개소당 평균 2.1회 이상 정비(중점관리구역 정비율 315.5%)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지방정부 우수사례 30건이 수록됐다. 민·관 협력, 시설 개선, 전담 인력 채용, 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 방식을 담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도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돌발성 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전담팀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빗물받이 관리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일상의 안전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지방정부의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고, 개선 사항은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오병곤 (044-205-5116)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양성수 (044-201-70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